업그레이드me 인맥 관리 노하우

■인맥관리 십계명

1.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2. 점심·저녁식사 시간을 활용한다.
3.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한다.
4.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
5. 빈틈없는 척, 잘난 척은 하지 않는다.
6.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우선한다.
7. 언제 어디서나 항상 웃는다.
8. 인맥을 공유한다.
9. 기념일은 꼭 챙긴다.
10.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한다.

멘토를 찾아 그대로 따라하라

무엇을 아는 지보다
누구를 아는 지가
중요한 세상이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부정적인 오해에
시달리기도 한다.
학연·지연·혈연으로 대표되는
인맥은 비리와 청탁의 온상으로,
끼리끼리 문화의
확대 재생산 도구로
곧잘 악용된 탓이다.
'사람 엮기의 달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인맥 관리가 한 예다.
하지만 인맥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경비원과 안부를 묻는 사이라면
주차할 때 편해지고,
식당 종업원과 친하면
굳이 값비싼 요리를 시키지 않아도
별미를 서비스 받는다.
청소 아주머니와 친하면
내 자리가 유난히 깨끗해진다.

'인맥 관리 전도사'로 통하는 맹환렬(45) 조선대 평생교육원 인맥관리네트워크과정 지도교수는 "인맥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고, 경쟁력이며, 최대의 자산이다"고 말한다. 맹 교수는 "인맥 관리의 첫걸음은 명함 정리에서 출발한다"고 역설한다. 받은 명함에 그 사람에 대한 간단한 정보나 날짜 등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만날 때 그 사람을 상세하게 기억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맹 교수로부터 직장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인맥관리 노하우를 들었다.

■멘토를 찾아라

인맥에는 지도자, 협력자, 추종자가 있는데 그 중 지도자, 스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멘토를 만드는 것은 인생의 50% 이상을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멘토는 자기 계발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에게서 좋은 점은 배우고 그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체크하면 더 발전된 자신을 만들 수 있다. 또 아무리 자신이 대인관계에 능하다 하더라도 선배의 인맥을 능가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유용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 사소한 사안일 지라도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버릇을 들여라. 그러면 돈독해진다.

■신뢰를 쌓아라

인맥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다. 신뢰가 인간관계의 초석이기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첫인상 중요하다.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첫인상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한 번 첫인상이 나쁘게 각인될 경우 회복되는 시간은 의외로 길다.

일단 한 번한 약속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지켜야 한다. 특히 사적인 약속 외에 회의 시간이나 외부 약속 등은 더욱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5분쯤이야 하는 생각은 자신을 5년 퇴보하게 만들 수 있다.

맹 교수는 "평소 작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맥을 쌓을 수 없다"면서 "가장 기본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을 사귀어라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인맥의 100명 중 20명 정도에게만 투자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수의 사람을 만날 시간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을 여러 번 만나는 것이 좋은 인맥을 형성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 중에는 '인간 중계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소식통'들이다. 인맥에서 소식통들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관절'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들과 링크돼 있는 게 중요하다. 자신이 소식통이 되는 것도 좋다. 회장, 간사, 총무 등 직책을 맡으면 회원들과 두루 친분을 쌓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새로운 정보에 항상 민감해라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적절한 때에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센스를 갖춰야 한다. 자신에게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꼭 필요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신문이나 잡지 등을 꾸준히 읽어 필요한 정보들을 스크랩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다가 대화 중에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다면 매우 여유있고 성실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알려주자. 단, 그 정보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당신 말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나아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열 사람을 제쳐두고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게 될 것이다.

■'333, 555, 777'하라

하루에 3번 웃고, 3번 칭찬하고, 3번 참아라. 하루에 5명에게 전화하고, 5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5명에게 e메일을 보내라. 한 달에 7번 점심약속을 갖고, 7번 저녁모임에 참석하고, 7명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라. 그만큼 웃고, 칭찬하고, 전화하고, 점심 약속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인맥 관리는 소중하지만 긴급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게을리하면 소홀해지기 쉽다. 인맥관리 사이트, e메일 발송 사이트, 문자메시지 무료제공 사이트, 명함자동정리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맥관리 실천일지를 작성해 하루하루 실천사항을 점검하라.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나의 인맥은 몇 명?

직장인 평균 82명… 사회 인맥 가장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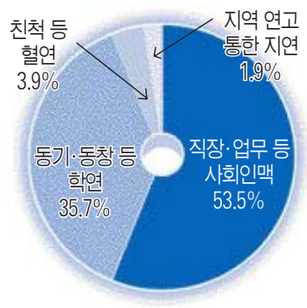
당신의 사회 인맥은 몇 명이나 되는가? 휴대폰엔 몇 명이나 저장돼 있는가?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평균 82명의 인맥과 250명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고 한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인맥전문 사이트 '인크루트 인맥'이 직장인 538명의 인맥을 조사한 결과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인맥이 평균 90명으로 여성의 67명보다 23명 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직장인들의 평균 인맥이 136명으로 20대(70명)와 30대(7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성을 들여 관리하는 인맥으로 '사회(직장, 업무 등)에서 알게 된 인맥'이 53.5%로 가장 많았고 '동기 · 동창 등 학연'(35.7%), '친척 등 혈연'(3.9%), '지역연고를 통한 지연'(1.9%) 등이 뒤를 이었다.

■정성들여 관리하는 인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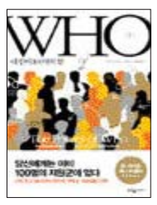
인맥 관리 방법으로는 전체의 64.3%가 '전화통화'를 꼽았다.

한편 응답자 대부분은 인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인맥도 능력이고 당연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91.4%에 달했다. 반면 없어져야 할 현상'이란 답은 8.6%에 그쳤다. 20대 등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인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성공으로 이끄는 인맥관리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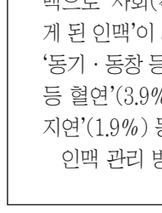
▲부를 부르는 인맥관리의 기술=부자가 되는 길은 여러가지다. 자연환경을 이용해 부를 쌓을 수 있고, 공장을 세워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투자를 통한 부 축적도 있다. 이렇듯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핵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 부자들이나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가진 인맥쌓기 노하우가 성공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부를 부르는 인맥관계 노하우를 설명하고, 부자들의 인맥관리 특성, 인맥관리의 달인이 되는 다양한 방법 등을 제시한다.

〈전도근 지음 / 좋은책만들기 / 1만2천원〉



▲WHO : 내 안의 100명의 힘=성공하기 위해 인맥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다. 그렇다고 온갖 모임에 참석하고 아무에게나 연락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미국 최고 헤드헌터로 꼽히는 저자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사람은 딱 100명"이라고 주장한다. 이 100명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100명이어야 한다는 것. 어떤 위기에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사람'이라고 역설하는 인생 전략서다.

〈밥 보딘 지음 / 김명철·조혜연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1만2천500원〉



▲세계를 움직이는 인맥=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부와 강력한 인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세계의 정치·경제·금융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의 키퍼슨(주요인물)들과의 풍부한 인맥을 자랑하며 전화 한 통화로 다른 키퍼슨과 연락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저자는 인맥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주요 '클럽'에 대해 주목한다. 초대형 부자, 유력 정치가, 재계인, 문화인들이 모여 정책이나 비즈니스를 화제로 의견을 교환하는 회원제 클럽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인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빌더버그 회의, 세계경제포럼 등 네트워킹 조직을 소개하고 이들 조직을 통해 세계가 움직이는 양상을 들여다본다. 〈나카야 야스히코 지음 / 한승동 옮김 / 시대의 창 / 1만4천500원〉